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 시절인연에 맞는 공부 방편 내놔야

## 새말귀(新話頭) ①

앞으로도 백년 후 천년 후 만년 후에도 출가하는 법은 있을 겁니다. 그럼 출가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똑 같은 중생인데 어떤 분은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서 팔자 좋게 공부를 해. 그러나 중생들은 팔자가 좋지 못합니다. 공부할 팔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의 고집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다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포기해 해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다. 부처님도 포기한 것 아닙니다.

일체 중생이 개유 불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한 지가 약 이천 년 삼천 년이다 하는데, 그동안에 중생들은 발전해 나가. 이걸 생각해 본다면 이전과 같이 그리 안 하더라도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부처님이 만약 요새 세상에 오셨다면 방편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방편, 하나도 없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도 만약 객관적 역건이 된다면 이전대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성을 발견하기 위한 방편, 이것은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바탕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바탕을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여기 앉은 그대로 온 누리의 사실을 엄숙하게 우리가 알게 하든요. 안다는 것은 허공성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말이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온 누리에 빌어낸 일체만법이 다 허공성이라고” 이렇게 아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허공성이라는 요 말마디만 알아. 허공성이라는 걸 딱하게 알게 돼. 그래서 그 실감이 생겨. 다른 것이 실감이 납니다. 그럼 솔직한 말로 우리가 공부하냐 안 하냐, 지금 현재 미했다 할 지라도, 온 누리가 허공성이라는 것, 태양도 허공성, 달도 허공성, 별도 허공성. 그 국토에 있는 만약 다른 세계에 초목이 라든지 돌이런지 있다면 그것마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태양

계에 속해 전체 그 속도 알아. 태양의 속이 어떻게 됐다는 것도 알아. 다시 말해서 이 누리가 있다면 누리의 속도 알아. 꿰뚫어버려. 이거 허공성이라는 말은 그거 아니냐?

이 말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이 심겁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거 심거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벌써 여러분은 부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겁니다. 만약 부처의 지견이 영 메달았다면 이거 말은 그럴듯해도 끈이 뜯겨지질 안 해. 그러나 여러분

“

24시간 화두 드는 건 스님들을 위한 수행법 입산수도를 못하면 그대로 방편 있기 마련

일반 사람들은 화두 가지면 안돼 생업전선에 뛰어들 재가자들에게 맞는 새로운 수행법 필요

”

들이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안다 말이지. 과학적으로 딱 맞는 얘기를 거부할 필요는 뭐 있냐 말이지. 거부 안 하면 우리는 믿어야 된다 말이지.

부처님 가신 삼천 년 후에 우리는 입산수도를 못해. 입산수도를 못하면 못한 그대로 방편이 있기 마련입니다. 요것이 선 지식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업이 중했든지 어쨌든지 입산수도를 못했어. 가정을 가지게 됐어. 자손을 길러야 돼. 사회사업을 해야 돼. 참말로 결단심이 있는 분들은 머리를 깎아 버려. 이 까지 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지. 깎아 버려. 그래서 가족도 인연을 끊고 홀연히

말이지 출가를 할 수 있지만 그거 안 되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영웅적이 못 돼. 그러면 영웅적이 못 된다고 하여서 말이지 아야 하고 죽는 거만 기다리느냐 말이지.

여러분도 똑같이 성불을 해야 된다. 불도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부처님의 뜻 일진대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노. 선지식들이 져야 된다. 과거에 술한 선지식들이 있었지만 요 문제에 있어서 는 아직까지 외치는 사람이 없어. 다른 거야 삼계를 혼든 선지식들이 있었어.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선지식이 나와야 돼. 나와서 이 시절 이 인연에 맞는 수단과 방편을 세워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스님네들은 이십 사시간 전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스님과 같이 되는 것 아닙니다.

좌우간 요새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요 시절에 맞는 이론과 방편, 시절인연에 맞는 방편을 내놔야 돼요. 천년이나 이천년 전, 백년이나 이백년 전에 쓰던 방편, 그 방편은 요새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화두, 화두 좋습니다. 지금 화두 가져야 돼. 그런데 요새 화두를 가진다는 건 계속 해서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화두 갖는 거 나는 거부할 하지 않습니다. 가져야 됩니다. 가장 편한, 좋은 계기가 된다 말이지.

그러나 이 시절 이 인연에 따라서 화두를 가진다는 건, 화두는 스님네들이 갖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화두를 가지면 안돼. 왜 그러느냐.

화두는 스님네들처럼 이십사 시간 전부 가져야 되거든. 순일하게 가져야 되거든. 보통사람들은 회사 나가서 농사짓지 장사하지 지식 키우지 밥 지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쪼아져. 그런데 요새 스님네들은 스님네 자기 공부하듯이 시키고 있다 말이지. 이것이 안 된다 말입니다. 조계사에서든 신도들에게 말한 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스님이 와서 들었습니다. 그때 웃습니다. 그때 내 뭐라고 말했냐면, 스님네들 말 듣지 마소 이랬습니다. 스님네들은 스님네들을 위한 말이지 일반인들을 위한 말이 아니라 말이지. 일반인들을 위한 말이라 할 때 뭇인가 달라야 돼.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눈과 귀 열려야 상대의 ‘덕성’ 본다

## 10. 행원례(行願禮)

### ② 칭찬여래(稱讚如來)

南無至心歸命禮西方阿彌陀佛 於一塵中慶數佛 各處菩薩衆海中 無盡法界塵亦然 深信諸佛皆充滿 各以一切音聲海 普出無盡妙言辭 盡於未來一切劫 讚佛甚深功德海 願共諸衆生往生安樂國

앞에서 언급을 보류하였는데 서방아 미타불이라는 데서 서방(西方)이란 어떤 의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방위를 말한다면 동서남북의 사방이 있고 상중하방이 있는데 왜 화필이면 서방이라고 하느냐, 그 까닭은 무엇이나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방위를 서방으로 정해 놓은 이것을 불교학 교리에서는 지방입상(指方立相)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돌이켜야 되는 것일까? 집중할 방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동서남북, 상중하,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정신이나 행동통일을 할 것인지, 초입자(初入者)에게 뿐만 아니라 숙달된 사람에게는도 당황한 노릇인 것이다. 그래서 서방이라는 방위를 못박아 놓았다.

그럼 왜 거이로 서방이라야 하는가? 서방은 고요한 곳이다. 만뢰(萬 劫 구적(俱寂)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즈넉히 가라앉혀 준다. 해는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진다. 동방은 능동적이고 모든 것이 새로 비롯하여 움직이는 아침을 상징한다면 서방은 이와는 반대로 하루의 노후가 끝나고 모든 번뇌와 투쟁과 생활이 움직임을 거두어들여 조용한 휴식으로 들어가는 밤을 가리킨다. 환화와 밤은 우리가 이마에 땀을 씻으며 조용히 가라앉는 마음으로 사색과 명상에 잠기는 때다. 공조 오상순(空超 吳相淳)은 ‘아세아의 마지막 밤 풍경’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것은 아주 훌륭한 시며 우리 동양의 모든 사상의 근원이 밤을 사랑하는데 있음을 노래 하였다. 밤은 고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르바나를 준다.

그리고 칭찬여래(稱讚如來)하는 여래에 대하여 다시 말한 것은 ‘이와 같이 오셨다’는 것. 세존이나 불타니 하는 성스러운 어른으로서야 오고 가는 것이 없을 터인데 여래라고 하는데는 그만큼 이유 가 있을 법하다는 그것이다. 앞에서 선서라고 하였을 경우로 본다면 여겨지고 해

야 마땅한 것이며, 또 우리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이 머물러 계시다고 한다면 여주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쓰지는 예는 없다. 우리를 편으로 볼 때 부처님께서 우리 죄 많고 고통에 신음하는 중생을 건지려고 ‘이렇게 오셨구나’ 참말 고맙고 반가운 일이다. 하는 우리들의 신앙 분위에서 나온 사상이라고 본다. 여래라고 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는 한결 정답이다.

그러면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려고 이와 같이 오신 여래를 우리는 어떻게 칭찬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먼저 칭양하고 찬탄하는 그 일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칭양과 찬탄을 하는 데는 무

“

남의 훌륭한 점 발견하고 칭찬할 줄 아는 사회는 그것만으로 위대하다. 남의 덕 알아보지 못하면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다.

남을 업신여기고 중상 모략하면 눈과 귀 · 총명이 막혀 불행이 당도한다.

”

엇보다도 대상자의 덕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또 그 덕에서 나오는 말을 잘 가려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한다.

이 칭찬여래(稱讚如來) 사절 중의 전반은 ‘눈’으로 보는 진수불(塵數佛), 티끌속에 충만한 제불(諸佛)을 노래하였으며 후반은 ‘귀’로 듣는 음성해(音聲海)와 묘언사(妙言辭)를 대상으로 삼았다.

우리가 중도를 얻어 유(有)와 무(無)의 두 극단에서 벗어나 운명론에 빠지지 않고 절망에 허덕이지도 않아, 끝내 나르바나에 도달하였을 때는 즉 붓다를 깨쳤을 경우에는 또 눈과 귀가 열리어 잘 보고 모든 것을 환히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다. 눈이 바로 꿰뚫고 보고 귀문이 열

리어 스스로 깨친 행동을 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어 각행이 공만해진다. ‘눈이 뜨이여 귀문이 열리어’ 하는 시귀(詩句)라도 읊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대상자의 덕을 알아보는 눈과 또 알아듣는 귀를 가진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남을 힐끔고 비평하기는 쉽다. 더욱이나 중상하고 모략한다면 그것은 대상자의 덕을 드러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덕을 보는 안목도 없고 귀도 막혔다는 것이 된다.

그런 사람은 총명이 막혔다고 할 수 밖에 없으니 불행이 당도해 있는 것이며 아주 경계해야 할 일이다. 남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이 큰 사람이다. 남의 훌륭한 점을 발견하고 알아 보고 칭찬할 줄 아는 사회와 민족은 그것만으로도 위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남의 덕을 알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특성을 발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다. 우리는 흔히들 무심결에 부족한 생각을 가진다.

스스로는 별 신통한 공부도 노력도 하지 않고 공연히 남을 업신여기는 수가 항상 있다.

이러다가도 강한 사람의 압력에는 쉽게 굴복하고 빌붙는다. 어쩌다 부강한 외국 이야기라도 듣게 되면 그만 사대주의에 빠져서 제 정신 못차리고 격에 맞지도 않는 외국풍을 피우려고 드는 것이다. 사대주의(事大主義)와 당쟁(黨爭)은 우리 국사(國史)의 치욕적인 결함이지만 이것이 고려말로부터 조선의 전 역사를 통해 두드러진 원인은 우리가 적을 만들어 내어 서로 싸울 줄만 알았지 상대방이(비록 적일지라도) 얼마나 장점이 있으며 훌륭하다는 것을 알아내어 포섭한다는 덕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당쟁이란 것은 아주 비열하게 중상과 모략으로만 일관하여 서로 잔학한 살육을 일삼았으며 빈번히 국가, 사직, 조차도 위태로운 지경에 몰아 넣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남몰래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치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중단사찰 가능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끼적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극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도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